

“고생한 경험 많아서 어려운 환자 돕고 싶었다”

상업용 조리기기 생산업체인 화신주방산업(주)의 이재천(74) 회장은 지금도 직접 운전해서 서울의 집과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회사를 오간다.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들 이승구(46) 사장이 만류해도 여전히 운전대를 놓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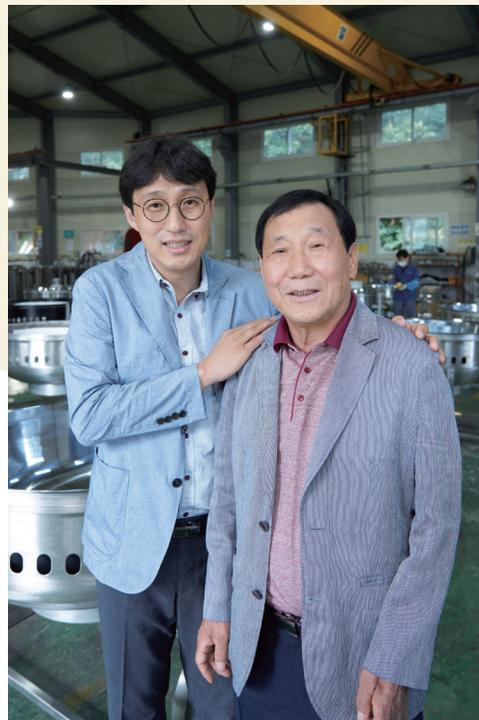
“출근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만 일하는 운전기사를 두기에는 월급이 아깝잖아요?”

이승구 사장은 “아버지가 걸치레라면 질색하신다. 회사건 사람이건 걸뭇 들어선 안 되고, 실속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근검절약과 내실을 중시하는 이재천 회장이 서울아산병원에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선뜻 내놓았다. 후원 이유를 알려면 이 회장이 살아온 시간이 되짚어봐야 한다.

초등학교 못 마치고 노동자 생활

이재천 회장은 194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면소재지로부터 걸어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에 그가 태어난 마을이 있었다. 그가 태어나고 3년 뒤 6.25가 터지자 동네 이장이던 할아버지가 납북됐다. 아버지는 그가 여섯 살일 때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어머니는 그의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재혼해서 그는 할머니 손에 컸다.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됐을 때였다. 입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친척 어른들이 알아보니 출생신고가 돼있질 않았다. 그제야 1954년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그의 실제 나이와 법적인 나이가 일곱 살 차이 나는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초등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끝내 마치지 못했다. 고향을 떠나 대구와 서울에서 생활하며 고생을 많이 했다. 어린 나이에 날뿔뿔이를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도 일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다. 미군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서 팔던 ‘꿀꿀이죽’을 줍고 어두운 천막 안에서 사먹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공동대표인 아들 이승구 사장과 함께한 이재천 회장.

18세가 됐을 때 당시 을지로4가에 있던, 주방기구를 만드는 철공소에 찾아가 잡부로 써달라고 사정한 뒤 이곳에서 4년여 일했다. 남들보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그의 솜씨는 점차 인정을 받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 데려가려는 공장이 늘어났다. 시간이 흐르자 주방기구 제조 기술자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공장장 자리에까지 올라 책임자로도 일했다. 관련 업체들로부터 기술력과 신용을 인정받은 그는 1978년 서울 신도림동에서 한신종합스텐레스공업사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1999년 화신주방산업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광주로 사업장을 이전했고, 매출액 180억 원(2019년 기준) 규모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10여 년 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신 선친과, 고생 많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힘든 환자들을 돕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화신주방산업은 직원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젊을 때 끼니를 많이 걸러본 그가 직원들에게 밥만은 든든히 먹이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한 일이다.  글 유인종 편집부